

어머니의 놀이성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만 3~8세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오 해 주¹⁾

유 미 숙²⁾

조 유 진³⁾

연세아동청소년상담센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인덕대학 사회복지과

본 연구는 한국판 어머니 놀이성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써, Schaefer와 Greenberg (1997)의 PSA(Playfulness Scale for Adults)를 토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문항양호도,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만3에서 8세 사이의 아동 어머니 249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번역과 전문가의 평정을 거쳐 구성된 28문항의 성인용 놀이성 평가척도이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구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내용타당도, 요인분석 및 하위척도 간 Pearson 상관계수를,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도비 χ^2 값과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요인분석을 통해 10개의 문항이 제외되었고, 원래 PSA의 5개 요인구조와는 달리 유머감각, 익살스러움, 재미탐닉의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척도들의 상관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구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어머니 놀이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써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놀이성, 어머니 놀이성, 척도개발, 예비연구

1) 연세아동청소년상담센터

2)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3) 교신저자 : 인덕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E-mail : cyj@induk.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한다. 특히 태어나면서 처음 관계를 맺는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성격 형성 및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더욱이 가족의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축소되면서 부모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 커졌으며, 높은 이혼율과 편부모의 증가, 그리고 가족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의 증가 및 개인적 고립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부모에게 더욱 민감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유미숙, 1999).

인간의 발달 과정 중 가장 많은 양적, 질적 변화를 겪게 되는 아동기에 부모가 발달 과정에 필요한 자극을 적절하게 제공하거나 반응해 주지 못했을 경우, 언어 발달, 지적 발달 및 전반적 발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아동기에는 놀이를 통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 부모의 놀이성이다.

놀이성은 개인이 환경에서 가져온 특성이나 속성에 의해 증명된 개별적인 성격특성으로 설명되고 있다(Barnett, 1990; Cskisezentmihayli, 1979; Lieberman, 1965; Rogers, 1988; Singer & Singer, 1977; Singer, Singer & Sherrod, 1980). 또한 놀이성은 놀이를 넘어 삶의 모든 부분으로 연장이 되는데, 이러한 놀이성은 한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놀이성 연구

의 중요성이 몇몇 학자들(Erikson, 1972; Guitard et al., 2005)에 의해 강조된 바 있다.

놀이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부모를 포함한 성인 놀이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인 놀이성에 대한 연구는 아동이나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성인 놀이성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들(Guitard, Ferland & Dutil, 2005; Schaefer & Greenberg, 1997; 김기순, 2002; 김자영, 2007; 김혜숙, 2007; 박현숙, 김광웅, 2004;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안선정, 2000; 이중강, 2004; 정은선, 2006; 조옥미, 2005)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Blehar, Lieberman & Ainsworth (1977)와 Beckwith(1986)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놀이성이 영아와의 애착 친밀 정도와 관계가 있고, 또한 놀이성이 높은 어머니와 함께한 영아들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놀이치료자의 놀이성을 측정한 Schaefer와 Greenberg(1997) 또한 놀이치료 장면에서 비성공적인 놀이치료자가 성공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요인은 놀이성으로, 즉, 놀이성이 풍부한 치료자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미있는 놀이 행동에 참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놀이치료 장면에서 아동의 기쁨, 참여, 만족을 강화시켜준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성인 놀이성에 관한 연구는 놀이성이 심리학적 구인이며,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정의(김영희, 2001;

Barnett, 1990, 1991; Glynn & Webster, 1992)에 근거해 부모의 성격특성 중 하나인 놀이성이 부모역할이나 양육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김기순, 2002; 김자영, 2007; 박현숙, 김광웅, 2004;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안선정, 2000; 조옥미, 2005)이 진행된 바 있다. 그 중 조옥미(2005)는 유아기 부모의 놀이성과 가족기능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 결과 어머니의 놀이성이 정서적 지지, 생활시간 공유, 가족원의 친밀감, 가족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가족원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현숙, 김광웅(2004)은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 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머니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쾌활성이 높고 즉흥성이 낮을수록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더 높았으며, 어머니 놀이성의 하위요인들이 양육 스트레스와 서로 연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부모 놀이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은 부모의 놀이성이 가족기능이나 자녀와의 관계,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부모 놀이성이 자녀 발달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 어떠한 강도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놀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몇 가지 이유에 기인하겠지만, 그 중 하나로써 부모 놀이성을 측정할 만한 적절한 척도가 개발되지 못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놀이성을 측정할 만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부모 놀

이성에 대해 연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모 놀이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비교·통합하는 데에도 제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인 놀이성 척도로는 Glynn과 Webster(1992)가 제작한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를 박현숙(2004)이 수정·번안한 것과 Schaefer와 Greenberg(1997)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SA)를 양은실(1998)이 수정·번안한 척도가 있다. Glynn과 Webster(1992)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The Adult Playfulness Scale)는 자발성(spontaneous), 표현성(expressive), 유쾌함(fun), 창의성(creative), 순수성(silly)의 5개 요인,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이 놀이성을 표현하는 25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강민경(2007), 김자경(2007), 박현숙, 김광웅(2004), 송은혜(2008),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2008), 이종강(2004), 조옥미(2005) 등의 연구를 통해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척도는 놀이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없이 단지 형용사 쌍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문항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한편 Schaefer와 Greenberg(1997)가 제작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SA)는 익살스러움(fun-loving), 유머감각(sense of humor), 재미탐닉(enjoy silliness), 비형식성(informal), 별난(whimsical)의 5개 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양은실(1998)이 수정·번안하여 이후 안선정(2000), 김기순(2002), 김진혜(2009)의 연구를 통해 사용된 바 있다. 이 척도는 각 문항이 놀이성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의 문장으로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우며, 또한 놀이성 하위요인이 놀이성과 보다 관련 높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아동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또한 낮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여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제한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성인 놀이성 척도에 대한 검토 결과, Glynn과 Webster(1992)의 성인 놀이성 척도는 문항 내용상의 한계점을, Schaefer와 Greenberg(1997)의 척도는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어머니가 아닌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또한 국내 연구를 통해 적용해 보았을 때 낮은 신뢰도를 보인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부모 놀이성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 놀이성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시급하며, 본 연구는 그러한 목적에서 어머니의 놀이성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비교적 놀이성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Schaefer와 Greenberg(1997)의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SA)를 바탕으로 한국판 어머니용 놀이성 예비척도를 구성해 보고자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의 도구 번역, 내용타당도 검증,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그리고 문항 양호도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한편 구체적 연구대상의 범위로 만 3~8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놀이가 증가하는 만 3

세(김광웅 역, 2005)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등 저학년(Parten, 1932; 양인자, 1983; 강문희, 윤지영, 2001)까지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해 구성된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는 향후 한국판 어머니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며, 또한 부모의 놀이성이 자녀의 긍정적 발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밝히는 작업과 더불어 부모를 포함한 성인 놀이성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 1) 어머니의 놀이성 평가 예비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2) 어머니의 놀이성 평가 예비척도의 신뢰도 및 문항양호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4곳과 초등학교 3곳에 다니고 있는 만 3~8세 사이의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67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에 자료분석에서 제외시켜 최종 249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연령, 월 소득, 자녀성별, 자녀 연령별 분포 *N=249

변 인	구 분	빈 도(%)
어머니 연령	26~30	11(4.4)
	31~35	94(37.8)
	36~40	109(43.8)
	41~45	33(13.3)
	46세 이상	6(0.8)
가구 월 소득	100만원 미만	5(2.0)
	100~199만원	20(8.0)
	200~299만원	41(16.5)
	300~399만원	52(20.9)
	400~499만원	51(20.5)
	500~599만원	29(11.7)
	600만 이상	41(20.5)
자녀 성별	남	117(47.0)
	여	132(53.0)
자녀 연령	만 3세	20(8.0)
	만 4세	34(13.7)
	만 5세	32(12.9)
	만 6세	31(12.5)
	만 7세	65(26.1)
	만 8세	67(26.9)

연구대상의 연령, 월 소득, 자녀성별, 자녀 연령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성인 놀이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Schaefer와 Greenberg(1997)가 개발한 성인용 놀이성 척도(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SA)로 놀이치료자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PSA 원 척도는 익살스러움(fun-loving), 유머감각(Sense of Humor), 재미탐닉(Enjoy Silliness), 비형식성

(Informal), 별난(Whimsical)의 5개 하위요인,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방식은 4점 Likert 방식이다.

3. 연구 절차와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어머니 놀이성 평가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도구 번역을 통한 한국판 어머니용 놀이성 평가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는데, 연구자들이 각 문항을 우리말로 번역하였고, 이를 다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재번역, 검토하게끔 하여 표현이 애매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아동학을 전공한 교수 3인으로부터 번역된 문항들이 어머니의 놀이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내용타당도 평정을 5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하였고, 또한 적절하다면 보다 수월한 표현으로 진술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이 평균 4점 이상(적절함)으로 평가되었고, 따라서 PSA 모든 문항들을 포함시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성 평가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4곳과 초등학교 3곳을 임의표집, 해당 기관의 원장과 교장 및 교사를 통해 만 3~8세 아동의 어머니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이후 회수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분석되었다. 첫째, 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되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법과 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요인의 수는 고유치, scree 검증결과와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둘째, 구성된 놀이성척도 예비척도 하위요인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문항 양호도는 문항 변별도로써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요인별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 25%의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문항별 점수가 상하집단에 따라 변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우도비 χ^2 값 및 Cramer의 V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구성타당도

어머니 놀이성 측정 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만 3~8세 아동의 어머니 249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직교 회전 방식 중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고유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eigenvalue 1이상인 요인은 Schaefer와 Greenberg(1997)가 놀이성에 대해 5개 요인으로 구성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5개 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출된 요인을 회전시킨 결과, 5개의 요인 중 다섯 번

째 요인의 문항구성이 2문항으로 요인으로써의 독자성 및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앞서 실시한 요인분석의 scree 검사 결과,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을 때 전체 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하위요인 수는 3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실시 후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전체 문항들을 대상으로 어느 한 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최소한 .30 이상인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요인의 총점간의 상관이 .30 이상인 문항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10문항을 제외한 총 18문항이 추출되었고 추출된 18문항에 대해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은 원 척도 5개의 요인 명을 기초로 하였는데, 원척도 중 유머감각(Sense of Humor)과 익살스러움(fun-loving)의 문항구성이 각각 본 연구의 요인 1 및 요인 2와 비슷하게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 요인 1은 유머감각, 요인 2는 익살스러움으로 명명하였다. 하지만 요인 3은 원 PSA의 5개의 요인 중 재미탐닉(Enjoy Silliness), 비형식성(Informal), 별난(Whimsical)에 해당하는 문항이 복합되어 있어, 보다 많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요인에 기준해 재미탐닉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별 문항내용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구성한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

표 2.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성분			공통분산 (h ²)
	요인 1(유머감각)	요인 2(익살스러움)	요인 3(재미탐닉)	
15	.71	.31	-.05	.62
12	.70	-.14	.16	.53
11	.64	.16	-.03	.43
14	.62	.28	.22	.51
18	.62	.09	.07	.39
8	.57	.12	.08	.35
24	.54	.00	.29	.38
27	.07	.78	.14	.64
17	.09	.75	.13	.59
2(R)	.10	.74	.03	.56
16(R)	.11	.69	.08	.50
9(R)	.39	.51	-.11	.43
21	.12	.02	.62	.41
4	.00	-.08	.61	.38
28	.23	.18	.58	.43
7	.20	.13	.54	.34
6	.05	.43	.49	.43
22(R)	-.36	.07	.46	.34
아이겐 값	3.21	2.96	2.07	8.24
설명분산	17.85	16.43	11.50	
누적분산	17.85	34.28	45.78	45.78

주.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도의 요인 1(유머감각)은 7문항으로 구성되며 45.78% 였다.
 설명변량 17.85%, 요인 2(익살스러움)는 5문항
 으로 설명변량 16.43%, 요인 3(재미탐닉)은 6 2. 구성요인 간 상관
 문항으로 설명변량 11.50% 로 나타났으며, 3
 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하위요인 간 상관

표 3.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문항 내용

요인	문항	내 용
요인 1 (유머감각)	15	나는 되도록 많이 웃거나 미소 짓는 것을 좋아한다.
	12	나는 우울할 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웃으려고 한다.
	11	나는 인생이 비관적이기보다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14	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즐거운 면을 찾으려고 한다.
	18	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보수가 많은 것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더 선호한다.
	8	나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좋아한다.
	24	나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한다.
요인 2 (익살스러움)	27	사람들은 나를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7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주로 내가 먼저 재미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2	나는 유머감각이 부족하고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6	나는 농담을 하거나 장난치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9	나는 스스로 잘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요인 3 (재미탐닉)	21	나는 눈덩이를 던지거나 눈사람 만들기, 모래성을 쌓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내 침실에 농구 골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28	나는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좋아한다.
	7	나는 샤워를 할 때, 노래를 부르거나 혼자 춤을 추기도 한다.
	6	나는 때때로 우스운 표정을 하거나 유치하게 행동하는 것을 즐긴다.
	22	나는 충동성과 부정적인 감정을 엄격히 자제하는 편이다.

표 4.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구성요인 간 상관관계

변인	하위영역	요인 1	요인 2	요인 3
놀이성	요인1(유머감각)	—		
	요인2(익살스러움)	.41	—	
	요인3(재미탐닉)	.26	.31	—
	총합	.78	.76	.68

주.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하위 요인 간, 또한 하위요인-총점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유의한 상관계수의 범위는 .26~.78이었다. 특히 척도의 총합과 요인 1의 상관도 $r = .78(p < .001)$, 요인 2의 상관도 $r = .76(p < .001)$ 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전체 놀이성에 대한 하위요인이 적절하게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문항양호도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도비 χ^2 값 및 Cramer의 V계수를 산출, 문항변별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를 통해 구성된 놀이성 예비척도의 검사점수에 따라 응답자를 상위 25%와 하위 25%로 나누어 문항별 반응빈도가 상, 하위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놀이성 척도의 18문항 중 4번과 22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우도비 χ^2 값 및 Cramer의 V값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놀이성 척도의 문항들은 대체로 어머니 놀이성 수준에 따른 상·하 집단을 의미있게 변별해 줄 것으로써 문항양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4. 신뢰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된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표 5.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문항변별도

문항번호	우도비 χ^2	Cramer's V
15	61.98	.62
12	31.88	.46
11	51.23	.57
14	77.64	.68
18	32.80	.46
8	34.90	.48
24	53.57	.58
27	76.52	.70
17	70.86	.67
2(R)	57.53	.60
16(R)	69.12	.66
9(R)	63.13	.63
21	28.34	.44
4	7.82	.22
28	57.56	.62
7	40.75	.52
6	50.00	.56
22(R)	1.50	.10

주. 문항 4, 22(R)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함.

(R)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표 6.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신뢰도

변인	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M	SD	최소값	최대값
놀이성	유머감각(F1)	8, 11, 12, 14, 15, 18, 24	7	.77	20.62	3.23	12.00	28.00
	익살스러움(F2)	2(R), 9(R), 16(R), 17, 27	5	.76	13.84	2.72	6.00	21.00
	재미탐닉(F3)	4, 6, 7, 21, 22(R), 28	6	.63	13.54	2.70	7.00	21.00
	전체		18	.80	48.00	6.43	32.00	68.00

주. (R)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해 문항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유머감각 .77, 익살스러움 .76, 재미탐닉 .63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놀이치료자 대상으로 개발된 성인 놀이성 척도(PSA)에 기초해 우리나라 어머니에게 적용 가능한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를 구성하여, 이를 토대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판 어머니 놀이성 척도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척도의 타당도를 알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구조, 총 18문항으로 구성됨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원 PSA 척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요인 1, 요인 2는 원 척도의 유머감각, 익살스러움 하위요인과 유사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 어머니의 유머감각과 익살스러움을 측정하는데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요인 3은 원 PSA의 다섯 요인 중 재미탐닉과 비형식성, 별난의 3개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혼재되어 있어 문항내용들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요인 3의 문항내용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고, 원 척도 하위요인의 문항들이 요인 3에 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요인인 재미탐닉을 통합된 요인 명으로 정하였다. 이는 재미탐닉, 비형식성, 별난에 해당되는 요인이 우리나라

어머니에게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평가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놀이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보고한 Farver, Kim 및 Lee(1995)의 연구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부모와 한국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들이 자녀와 놀이할 때 상호작용의 특성을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한국부모는 미국부모에 비해 놀이보다는 학문적 활동을 더 중시하며, 부모의 지위를 강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놀이에 대한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본 연구에서의 부모 놀이성 예비척도의 하위요인 구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위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 척도들 간에 전반적으로 $p < .001$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놀이성 하위요인이 전체 놀이성의 하위요인으로써 적절하게 수렴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셋째, 문항양호도 분석을 위해 문항변별도를 검토한 결과, 2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놀이성의 상·하 집단을 의미있게 변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구성한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의 문항들이 비교적 적절함을 보여주었다.

넷째,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80,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63에서 .77의 범위를 보여 양은실(1998)의 연구에서 낮은 신뢰도를 보인 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당도에 대한 검토로써 요인분석을 실시, 요인구조를 확인하였지만 준거관련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검토되지 못했다. 이후 한국판 어머니 놀이성 척도 제작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의 타당도를 검토함으로써 척도의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상표집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적으로 편중되었으며, 자녀 연령대가 7~8세인 어머니 집단이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연구대상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 지역, 자녀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집단을 표집함으로써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원 PSA의 5개 요인 중 재미탐닉과 비행식성, 별난의 3개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혼재되어 이들 요인이 우리나라 어머니에게는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 구성의 차이가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구대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놀이성 예비척도를 구성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및 문항양호도를 검증함으로써 한국판 어머니 놀이성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

과 계속적인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당하고 신뢰로운 한국판 어머니 놀이성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또한 아동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놀이성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써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희, 윤지영 (2001). 유아 및 초등학생 부모의 자녀 교육 목적과 가정분위기 지각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6, 211-237.
- 김광웅 외 (2005)역. *놀이와 아동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기순, 박인전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놀이성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5(2), 27-43.
- 김양순 역(2008). *놀이치료를 통한 부모-자녀관계치료 10세션 부모-자녀 놀이치료 모델*. 서울: 학지사
- 김영희 (2001). 성격유형과 놀이성, 스트레스대처방식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4(1), 31-40.
- 김자경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혜 (2009). 아버지의 놀이참여 및 놀이성과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7). 어머니의 양육환경 및 놀이성과 유아의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숙, 김광웅 (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놀이성과 부모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7, 13-24.
- 송은혜 (2008). 아버지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선희, 차윤희, 김영희 (2008). 어머니의 놀이성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놀이성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81-299
- 안선정 (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3(2), 75-85.
- 양은실 (1998). 놀이치료자의 놀이성과 경력, 태도, 지식, 기술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인자 (1983). 가정에 대한 어린이들의 지각에 관한 일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숙 (1999).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중판). 서울: 상조사.
- 이중강 (2004). 어머니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생활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선 (2006). 어머니의 놀이성 및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옥미 (2005). 유아기 부모의 놀이성과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ckwith, L. (1986). Parent-infant interaction and infants' social-emotional development. In A. W. Gottfried & C.C. Brown (Eds.), *Play interactions: The contributions of play materials and parental involvement to children's development* (pp.279-292). Lexington, MA ; Heath.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and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and Culture*, 4, 51-74.
- Blehar, M. C., Lieberman, A. F., & Ainsworth, M. D. S. (1977). Early face-to-face interaction and its relation to later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48, 182-194.
- Csiksezmihayli, M. (1979). The Concept of Flow. In B. Sutton-Smith(Ed.), *Play and Learning*. New York: Gardner Press.
- Erikson, E. H. (1972). Play and civilization.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 (Eds.) *Play :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690-703. New York. Basic Books.
- Farver, J. A., Kim, Yonnie-Kwak, & Lee, Yoolim (1995). Cultural Differences in Korea- and Anglo-American Preschoolers' Social Interaction and Play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6, 1088-1099.
- Glynn, M. A. & Webster, J. (1992). The adult playfulness scale: An initial assessment. *Psychological Report*, 71. 83-103.
- Guitard, Ferland & Dutil (2005).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Playfulness in Adults. *OTJR: Occupation, Participation and Health*, 25(1). 9-22.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Parten, M. (1932). Social play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8, 136-147.
 - Rogers, C. S. (198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 of the south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LA.
 - Scheafer, C. & Greenberg, R. (1997). Measurement of playfulness: A neglected therapist variable.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2(6), 21-31.
 - Singer, D. G. & Singer, J. L. (1977). *Parter in man*. A step-by-step guide to imaginative play in children. New York: Harper & row.
 -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 play behavior. *American Psychological Bulletin*, 2, 143-156.
- 1 차원고접수 : 2010. 01. 09.
수정원고접수 : 2010. 02. 16.
최종게재결정 : 2010. 03. 04.

A Preliminary Study on a Playfulness Assessment Scale for Mothers of Children aged Three to Eight

Hye-Ju Oh

Yonsei Counseling Center

Mee-Sook Yoo

Sookmyung Women's University

You-Jin Cho

Ind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Playfulness Assessment Scale for mothers, to construct a mother's Playfulness Assessment Scale, and to verify the suitability of questionnaires, their validity, and credibility according to the scale developed.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were 249 mothers who have three to eight age children and the main research tool consisted of 28 questionnaires of the Playfulness Assessment Scale developed by both translation and in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s. For the verification of construct validity, factor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for the item analysis, χ^2 value and Cramer's V were calculated, and for the verification of reliability, Cronbach's α , and mean, standard deviation, maximum, minimum value were calculated. After research factor analysis, 10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and the factors of Sense of Humor, Fun-loving, and Enjoy Silliness were added to the 5 factors of the original PSA. Correlation among sub factors was high, and the total reliability of the tool coefficient was $\alpha = .80$. Therefore,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as a preliminary research exercise for developing a Playfulness Assessment Scale for mothers.

Key words : mother's Playfulness, playfulness scale for mother, PSA(Playfulness Scale for Adults), playfulness, development scale